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6,

요한복음 4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까지의 6회기입니다(요한복음 4:1-54).

안녕하세요. 저는 David Turner입니다. 이것은 John에 관한 여섯 번째 비디오입니다. 우리는 비디오 6에서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으며,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공적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갈릴리 가나까지 부르는 장입니다. 지리적 이동이 많은 일종의 여행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이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 이 장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서술적 흐름은 꽤 흥미롭습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여행하시다가 전통적으로 야곱에게 할당된 우물, 즉 그리심산과 에발 근처의 현재 도시 나블루스 근처의 마을인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앙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이 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능숙하게 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떠난다.

그는 그 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느니라.

그래서 상황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앞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롯은 일종의 혼합되어 있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온 한 관리를 만납니다.

에서 우리는 복음에 나타나는 표적과 믿음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의 끝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하자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심 일은 유대와 북부 갈릴리 사이의 중간 지역인 이곳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나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접촉을 피하는 관습처럼 요단 계곡으로 건너와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대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게 될 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일과 귀족은 가버나움 출신이어서 그는 이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나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배경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인지, 이곳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다는 본문의 미묘한 내용들을 불러옵니다.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씀하시나이까 그 인종적 차이는 자기가 여자이고 그는 남자라는 사실로도 인종적 차이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니 참으로 놀랍도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현재 사회사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분단왕조 시대 이후 오므리 왕이 북왕국의 수도로 세운 지역이자 도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저주와 축복을 후렴으로 낭송하는 언약 갱신 의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조금 후에 앗수르에 의해 북쪽 왕국이 패배하고 많은 주민들이 추방되고 그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는 일이 나옵니다. 왕에 대한 반역을 막기 위해 행해진 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혼합체, 즉 이것이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용광로를 가지고 있으며, 분명히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끌려온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여 종교적, 인종적 혼합 또는 혼합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종교적인 유대 민족에게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읽으면서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 정착자들은 혼합주의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릴 전망에 대해 전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은 외국인들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신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곳의 종교는 야훼 숭배의 남은 것과 정착한 외국인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의 조합이었습니다. 땅.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르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읽기 시작할 때쯤에는 상황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가 우리에게 남긴 전집, 즉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한 분들은 이것이 소위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과 누가복음의 아주 초기 부분에서 예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신 여행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준비하게 하셨으나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심이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야 하는지 알고 싶었고, 예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문화적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누가복음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 나오는 선한 비유와 달리 빈칸을 채우는 선한 비유가 나오죠? 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문화적 편견을 전복시키고 때로는 사마리아인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나병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요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했던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와 거의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거의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부정적인 상황과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을 재결합시키는 방식 사이의 평행성을 함께 묶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에 대해 다소 이상한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믿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표징으로도 그 사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예루살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예수께서 이 장에서

여자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의 원칙이 여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분명히 배타적인 조치를 취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탐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심오한 성경 신학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비디오의 길이가 45분 정도가 아니라 1시간 30분 정도가 되므로 이 시점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지리에 대해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성 지도는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있는 현대 도시 나블루스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여줍니다. 더 넓은 위성 지도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땅에서 우리는 그림 중앙에서 여자가 언급한 사마리아 성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폐허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방문하고 있는 이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을 전통적인 야곱의 우물(Jacob's Well) 장소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것이 정확히 그것이 있었던 곳인지에 대해 너무 확신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25년 전쯤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쯤에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그 부지 주변에 교회를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은 아마도 그들이 지붕을 올리기 전에 그것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인클로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두 개의 감시견이 있고 각각 집이 있다는 농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출구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야곱이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흥미롭고 아마도 실제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문학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4장에는 서로 다른 두 줄거리가 아주 교묘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결국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장 27절부터 30절에는 여자가 떠날 때 제자들이 돌아오는 약간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이 시기가 두 플롯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도표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려고 시간이나 노력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밭이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 즉 그가 니고데모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즉 성령을 프로그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실물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성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할 준비가 그토록 준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절이 흐르는 문학적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콘텐츠의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는 사실은 단지 지리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마리아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들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오가기 위해 요단 계곡을 통과하여 내려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것을 하셔야 하고 저것을 하셔야만 하는 다른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그곳으로 약속을 정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싶다면, 아버지께서 그분을 위해 정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난 것도 그에게 있어서 일 중 하나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을 것처럼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신 것처럼 명백히 곤경에 처하셨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복음서에서 예수의 인성이 실제로 명백하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의. 이것은 예수가 단지 여기서 연기하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예수의 인성에 대한 매우 명확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은 매우 미친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었으며 여행으로 인해 지치고 지쳤으며 목이 마르고 마실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자와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교환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6개의 다른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그녀와 6번씩 왔다갔다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녀를 끌어내고 그녀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그녀에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아마도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생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주의를 끌게 되므로 그는 그녀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치채시면 7절과 15절 사이에 교환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실 것 좀 주실래요? 7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괄호 안의 참고 사항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9절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그녀가 만진 그릇을 그녀에게서 취하시는 것은 일종의 의식적인 부정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꼼꼼한 유대인들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네, 하지만 그녀는 점차 그 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내가 그걸 사용하면 물을 길러오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여기에 계속 내려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내려온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아마도 그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물을 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정오에만 그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녀가 남편이 네 명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Lynn Koeck 교수는 이 문제와 신약 시대의 여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우리가 이 여자의 성적 폐카딜로에 관한 장을 너무 많이 읽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단순히 이혼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에는 다양한 동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성격과 삶을 꿰뚫어 보신 후, 그 여자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군요. 나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절에 너희 유대인들은 이곳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곳이라고 하느니라. 여기가 바로 예수께서 2장에서 자신이 자신의 몸인 성전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자신이 새로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새로운 장소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지구.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숭배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독점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글썄요, 본문은 우리가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오고 여자는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거기에 머물지 않지만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31절부터 38절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 여자는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26절, 28절 등). 그녀의 동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매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더니(30절). 그리고 마침내 39절에서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증언을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말하되 우리가 이제 그를 믿는 것은 단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니라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장의 이 부분이 42절로 끝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장이며, 많은 문학적 조사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비디오 작가나 극작가가 이를 기반으로 한 장면이 다른 장면(아마도 주요 장면)으로 사라지고 무대 옆에서 다른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극본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숙련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영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열려 있고, 그녀의 간증이 너무 빨라서 그녀의 동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계속 가던 곳인 가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자의 개방성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그 여자를 이전 장에서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가 다른 내용과 비교하고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성별과 민족적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그 유대인 남자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으며 많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유대인인 니고데모를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파트너를 둔 부도덕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린 코히크(Lynn Cohick) 교수가 그녀의 책에서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아마도 본문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특정 문화에서 부도덕이나 불신앙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녀가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문제로 너무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상황을 우리가 두 번째 소개 강의인 비디오 2에서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 이야기한 본문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과 예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비교하는 것은 다소 흥미로울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한다고요? 글썄, 그들은 떠났다.

좋아, 예수께서는 가라.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그녀를 도덕적 문제가 있는 여인과 예수의 관계에 관해 현재 요한복음 8절 11절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전통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을 넘어 아주 분명한 다른 문제로 나아가면 니고데모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저명한 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사회적 지위에서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하나님을 이해했고 모든 바리새파 전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정통파 사람, 종교적으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시대의 혼합주의로 돌아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이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의 문화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많은 동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7장과 11장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볼 때 이것이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으니 나도 인도하여 그들로 한 우리, 한 목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기 원하시고, 성경신학적으로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요한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의 편견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단지 여인과 이야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민족적 차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양립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문화 속에서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글썄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분을 위한 간증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에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의 적절성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이 이곳에서 여러 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비슷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는 방식으로 창조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빛을 가져오시고, 빛을 창조하시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바울 신학을 가져와서 그리스도 안에는 성별과 민족, 문화적 지위, 사회적 사다리,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부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모든 인종과 사회적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다른 것들은 실제로는 우연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들의 문화가 어떠했던 간에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장은 더 짧은 섹션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앞서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에서 갈릴리 가나 왕실 신하를 다루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아마도 더 흥미로운 점은 그 관리가 가버나움에서 예수께 와서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급히 가나에서 예수를 찾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술을 보면, 4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머물다가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괄호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 전통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실제로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여기서 이것을 지적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어느 고향, 어느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향이 예수님을 실제로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은 여기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거기서 표적을 행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요한복음 444장의 이 말은 공관복음 전통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소 혼잡된 대우를 받으셨던 방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 아마도 진정한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예입니다. 아마도 444년의 이 진술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엇갈린 환영을 받으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사 그곳 왕의 신하를 만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로만 믿게 되는 것을 격노하신 것 같으니 48절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느끼셨고 그곳에서 제대로 영접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문제는 아마도 표적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지 못한 표징에 대한 오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생각은 아직도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귀인과 그의 예수님께 대한 요청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그와 같이 응답하시는 것이 다소 가혹하거나 갑작스럽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죽음이 임박한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47절).

예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신다. 당신은 와, 예수께서 그곳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셨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 약간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49절에서 단념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걸보기에 가혹해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속히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 아이를 고치셨고,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직 길을 가던 중에 떠났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서 그의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보기 위해 집까지 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언제 나아졌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그들은 오후에 열이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때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때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려지자 그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4절의 결론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행한 모든 표적 중 두 번째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2장의 갈릴리 가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2장과 11절로 돌아가는 루퍼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표적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고 John은 나에게 그것은 계속되는 해석적 질문이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크레이그 코스터(Craig Koester)의 견해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대한 매우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의 책 중 하나는 생명의 말씀(The Word of Life)으로 불리며, 이는 요한의 성경신학에 가깝습니다. Kester는 표적과 믿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에게서 또는 예수님에 관해 들은 내용을 통해 이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표적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케스터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다면 그 표징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스터는 계속해서 제자도의 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듣고 따르도록 부름을 받을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표징을 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듭니다. 그들에게 기호는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기존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케스터가 여기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마음과 신학적 관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즉, 케스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른 일들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그가 성찬보다 말씀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거의 느끼지만, 예수님의 표징이 성찬으로 적절하게 추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케스터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임장이나 백업 또는 확인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여기에서 표징에 관해 말씀하신 사례들로 그것이 완전히 입증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책의 끝까지 작업하면서 다루게 될 것이며, 케스터가 말하는 것이 베드로에 대한 에필로그 전에 책이 끝나는 2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마와 도마의 의심과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20장 29절에서 너희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표징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표징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ester가 여기서 제안하는 관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Koester의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잡한 질문이고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것의 결론과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5편에 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까지의 6회기입니다(요한복음 4:1-54).